

2019년 8월 19일, 서귀포시 대천동(강정동) 강정마을경로당, 류진옥 조사.

박세범(남, 1936년생, 서귀포시 강정동)

- 서귀포시 강정동 출신으로 군복무 외에는 강정동에 거주 중이다.

- 줄거리: 강정에 사는 강씨가 밤에 집으로 가는데 한 여자가 함께 가겠다고 따라왔다. 강씨는 여자를 자신의 뒤에 태워 집에 갔다. 그때 강씨가 집에서 키우던 개가 그 여자를 물어뜯어 죽이고 보니 여우였다.

[조사자] 얘기 들은 뭐가 잇수가?

[제보자] 이것도 재미진 얘기라. 한 삼백 년 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강 씨 집안에 강○이라는 분이 있었어. 이름이 강○. 강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바람둥이였던 모양이야. 아주 한량이야.

말 타고 퍼뜩 허민 저쪽 마을, 그때는 고을이라 그랬잖아. 고을에 갔다가 상부에 갔다가 하는데 어디 갔다 오다가 밤중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디서 왔느냐면 저디 강정 서쪽에 가면 동호물이렌 헌 디가 있어. 그 딜 오니까 와 보니까 어떤 처녀가 구덕이 옆에 끼고 돌아와가지고,

“오빠, 나하고 같이 가자.”

그렇게 허드레.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다음에 만나자 하고 뿐리치고 집에 돌아왔다는 거야. 경행 집에 들어와도 궁금증이 풀리지 안하잖아. 그래서 이제는 속에는 담아져 있는데 고을에 간 오다가 또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아니고 딴 자린가 어느 자리인진 몰라. 또 그분이 나타났다는 거라. 나타나니까 이제는 말 뒤에다가 태우고 새끼를 둋통에 매고 떨어지지 안허게끔 매고 집에 와서 내리니까 집에는 큰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개가 어흥 허게 물어뜯어서 죽인 거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여우더라.

- 핵심어: 강정, 한량, 동호물, 여우, 구미호, 개